

제2회 인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 심사총평

『제2회 인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에 신청하여 주신 모든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회 대회에 성공적인 실험정신을 계승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본 페스타는 전국의 역량 있는 전문 예술단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엄격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총 7개 단체가 선발되었으며, 이어 진행된 2차 영상 및 PPT 심사를 거쳐 인천의 소극장 무대를 빛낼 최종 4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는 본 축제가 지향하는 장르 간의 유기적인 ‘교류·교차·확산’과 소극장 활성화라는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국의 훌륭한 작품들이 대거 지원해주셨기에, 한정된 본선 무대를 두고 최종 선발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심사위원단 모두 깊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최종 결정의 순간까지 『인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크로스(융합)의 진취성’, ‘예술성의 조화’, 그리고 **연극 중심의 무대 언어**를 핵심 지표로 삼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종 본선작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계획 속에 당장 무대화된 실연 공연을 보고 싶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만 축제의 한정된 예산과 소극장 대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단체와 본선 무대에서 함께할 수 없음에 심사위원단 일동 모두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류와 영상 자료만으로 단체들의 위대한 예술적 역량을 모두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상황 속에서, 혹여나 빛나는 작품을 놓치지 않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심사위원단 안목의 한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번 경연 무대에서 다 모시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며 인천 소극장의 역사를 새로 쓸 『인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에 향후 더 빛나는 작품으로 다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예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2회 인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 심사위원 일동 -